

제6회 포천시 자랑스런 農業人 대상

- 수도작 이규서(영북면 운천리)
- 원 예 이완중(관인면 삼울리)
- 축 산 김인배(영중면 거사리)
- 과 수 이황순(가산면 우금리)



이규서 이완중 김인배 이황순

포천시는 25일, 농업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제6회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수상자를 수도권, 원예, 축산, 과수 등 모두 4개 부문에 걸쳐 발표했다.

수도작 부문의 이규서 씨(47·영북면 운천리)는 육묘장 설치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퇴비 활용을 통한 저농약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 원예 부문 이완중 씨(53·관인면 삼울리)는 이산화탄소 발생기 제작과 절약형

보일러를 통한 생산비 절감, 관인면 절지 절엽 화훼단지 조성, 유기농법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구현 등의 공로가 인정을 받았다.

축산 부문 김인배 씨(46·영중면 거사리)는 컨설팅을 통한 과학적 영농 구현 및 경영 합리화, 집약적 관리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사양관리 강화, 지역브랜드와 연계한 유통혁신, 환경오염예방과 분뇨 자원화, 그리고 축사환경개선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

과수 부문 이황순 씨(49·가산면 우금

리)는 유기농법과 자연농법을 활용하여 저농약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는 등, 선진농업기술 도입 및 보급으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을 받았다.

한편 이번 수상자들은 24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수상자 선정식을 위한 농정심의회 부문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을 생신비 절감과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과 농

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자랑스런 농업인 선정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은, 농업의 기술화·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발굴,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 올해로 6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농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11월7일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Essay

오-우리의 섬 울릉도 독도



윤순옥
포천2인간협회회원

외로운 섬도! 독도로 인해 이웃인 일본과 시끄러운 투쟁도 해왔고 그로 인해 일본인이 밟고 저주스러웠다는 건 일제치하 때부터 우리국민 가슴속에 앙금이 남아 독도문제에 대한 흥 날카로운 반응이

보충 상해하다. 화산석 바위 위에 절정을 이룬 해국 로 인해 건조되고 있는 해국 독도의 모양은 쌍둥이다. 그러나 그 일 모양은 완연히 다르다. 숲한 비바람과 해풍에서 견뎌 내려면 잎은 짙고 통통하게 꽃잎을 둥글게 감싸고 있다.

자연의 섭리가 이토록 아름답게 독도 섬을 가꾸고 있다.

울릉도 해변에는 수 천 마리의 오징어가 건조되고 있는데 한 마리의 파리가 없는 것이 신기하기 이전에 불가사의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들고 섬 인구가 8천여 명이라는 생활오염에서 생겨날 수 있는 파리가 없다는 것은 섬 자체를 이루고 있는 화산석과 용암석에 그 비밀이 있는지 몰라도 섬 공기가 깨끗한 데 그 이유가 있을지도 하다. 또한 어디를 가도 식수의 맛은 어느 유명약수 못지 않게 물맛이 뛰어났다.

섬 주민들 이야기로는 일년에 40여일 정도가 좋은 날씨라니 삼백육십오일 중 천문같은 날씨에 이 아름다운 섬을 찾았으니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다.

이처럼 개인의 생활자세를 희생하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독립투사에 버금가는 애국자다.

독도 인근 연안에는 풍부한 어종이 다량으로 사육해서 일인들이 떠나는 황금어장이고 또한 천연기념물도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계산 빠른 일인들이 어찌 탐내 않을지? 배에서 내려 독도 땅에 발을 딛자 알 수 없는 감동이 가슴을 스치고 간다.

또한 울릉도나 독도에는 갯벌이 없고 몸돌이라는 주먹크기의 작고 큰돌이 해변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바닷바람을 쐬고 다녀도 끈적임 없이 보습

특산품인 호박막, 오징어, 더덕, 취나물 등을 먹고도 먹어도 그 맛의 요철에 빠져드는 것 같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어디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깨끗한 공기, 환경이 부럽고 욕심났다.

어쩌랴. 약속된 날씨에 욕심을 향해 돌아오는 뱃길에서 갈 때의 기대감보다 아스라이 접어들고 떠나오듯 아쉬움이 못내 멀어져 가는 섬을 자주 돌아보게 한다.

언제가 다시 오리라는 나만의 약속을 푸른 바다 위에 남기고 돌아왔다.

영북면민 합숙의 한마당 잔치

제11회 각할문화제·영북면민 체육대회

포천시 영북면 체육회(회장 안천중)는 주민의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11회 각할문화제 및 영북면민 체육대회를 10월22일 오전10시부터 영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1천여명의 영북면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기념식과 체육대회,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박운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영북면민의 화합과 단합을 발판으로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7조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1조는 운전2·7리, 2조는 자일1·2·3·4리, 운전3·8리, 7조 산정리로 구성됐다. 행사종목은 축구, 발품고 달리기, 단체줄넘기, 유투볼마시미, 공굴리기(65세이상),줄다리기, 계주 등을 실시했다. 한편, 노래자랑은 각 리별로 1명씩이



출전했다.

이날 행사결과 노래자랑 1등은 운전3리, 2등 문암리, 3등 산정리가 차지했으며 축구는 1등 운전3·8리, 2등은 산정리, 줄다리기 1등은 운전5·9·문암리, 2등 산정리, 계주 1등 산정리, 2등 운전2·7리가 차지했고 단체줄넘기 1등은 문암리, 2등은 운전 3·8리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북면주민자치센터 기타동아리의 연주와 노래가 첫 선을 보여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자문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자문위원회 감사 및 임원위촉 회칙개정 등 처리

본지 자문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가 지난 25일 본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2006년도 6월-9월 재무보고 및 승인의 건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해촉 및 위촉에 관한 건 ▶자문위원회 감사 및 임원선출의 건 ▶자문위원회 회칙 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 감사는 이희용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경제분과위원장에 윤종하 위원, 교육문화분과위원장에 최윤섭 위원, 정치분과위원장에 윤순옥 위원을 위촉했다. 또 이윤우 전 포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장을 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회칙 개정의 건에서는 현행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3.6.9.12월) 첫째주 화요일에서 2개월에 한번씩(2.4.6.8.10.12월)에 한번씩 개최하기로 했다.

또 대행 부위원장은 “최근 고교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 교장들이 고민이 많다”고 지적하고 “포천지역 고등학교는 입학정원 미달상태와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의정부와 신설 동두천 외국어고에 우수한 학생 300여명이 빠져나가고 신설되는 송우고등학교 12학년 신입생을 모집한다”면서 “포천 소재 다른 고등학교는 입학정원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용 위원은 “자문위원으로는 견습생이지만 고학 소식을 접할때 주는 포천신문사에 늘 감사드립니다”면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은 고향을 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한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자유기고

방산 무기 화력시범을 보고



김기호
주부영어가이드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그 곳에 가는 길 이..... 단원이 알맞게 물들어 바람에 하늘거리는 작은 키의 코스모스를 보며 웃는 듯한 풍경은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와는 동떨어진 느낌이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니 분위기는 확 달라지고 차에서 내리자 멋진 한복 아저씨가 가슴에 빨간 표찰을 달아주며 관람석으로 안내를 했다.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복장과 신발에 대해 약간 갈등했지만 구두를 신고 나선

걸 후회하게 만드는 고바위 길이 30분 정도 이어졌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 평균 600미터 고지 꼭대기에 이렇게 넓은 장소가 있다는 점에 놀랐으며 관람석 맞은편 저 멀리 여러 개의 산봉우리에 한글, 알파벳, 숫자 등이 선명하게 쓰여 있음에 다시 한번 놀랐다.

1,600개의 관람석이 순식간에 다 채워지고 행사시간이 되자 1분도 지체 없이 마스코트를 통해 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큰 말테비전으로 방산 무기가 세세히 소개되면서 실연이 전개되었다.

“최악 가 지역에서 저 멀리 I 지역으로 포병/방공무기 K-9자주포가 발사됩니다. I 지역을 봐주시시오!” 팍 소리와 함께

빨간 점이 튀더니 I 지역에 짙은 회색 연기가 자욱해지고 몇 초 후 팡파바 굉음이 울린다. 보고 있으면서도 깜짝 놀랐다.

“코브라 헬기가 우측 항공에서 8 지역 탱크를 일시에 섬멸합니다 8번 지역을 봐주시시오!”

삼광을 쬐는 4축이 한 줄처럼 뻗더니 탱크가 박살난다. 섬뜩했다.

많은 방산 화력 무기들이 제 각기 특징과 100% 적중률을 자랑하다가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적이 몇 군데 포진해 있음을 가상으로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모든 지상, 포병, 항공 동시 폭격이 실시되는데 일대가 완전 숙대밭이 되는 것 같았다.

만약 실지 전쟁이 난다면 이 와중에 그 누가 생존 할 수 있겠는가? 전쟁은 비극이다. 절대 무력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가슴과 입술이 얼어붙는 듯 했다.

레이다가 달린 탱크가 한번 발사 될 때 2,800개의 탄알을 쏘아대고 그 경비는 3억이라 했다. 엄청난 돈이다. 전쟁이 아닌 국민 모두가 죽지 않으면 거지가 될 것 같은 상상은 망상일까?

모든 시범이 끝나고 마무리 멘트를 하는데 화학 연기위로 저 멀리 산봉우리에 지는 해를 받아 역새꽃이 반짝이며 웃고 있는 듯 한데 전쟁과 평화의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승진훈련장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방산 무기 화력시범’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이 국민의 안녕을 지켜 줄 수 있는 막강파워가 있음에 세상 스레 가슴 든든함도 생겼지만 한편으로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되고 이 아름다운 강산에 아름답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이런 체험을 접 할 수 있게 됨에 감사 드린다.

자유기고

첫 연주회를 마치고



김기경
주부영어가이드
영북면사무장

아침부터 비가 부슬 부슬 내렸다. 서늘한 가을비로 인해 온 몸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날씨는 쓸쓸스러웠다.

오전 11시, 기타동아리 회원들과 주민자치센터 기타동아리가 모여 마이크와 악보대, 선풍연결선 등 장비를 설치하고 기타연습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이무대라 EQ기타(앰프에 연결하여 연주할 수 있는 통기타)와 개인미크 및 스탠드, 악보대 등을 준비해야 하니 장비 연결하는 시간만 해도 꽤 오래 걸렸다. 연주준비를 마치고 첫 연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운동장에서 연락이 왔다.

오후 3시 연주예정이었다는 비가 와서 일정이 앞당겨졌으니 지금 당장 올라오는 것이다. 기타조율은 커녕 연습도 한번 못해보고 다시 장비들을 챙겨 차장에 싣고 면민체육대회가 한창인 영북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향했다.

운동장에서는 젊은 빛줄기에도 아랑곳 않고 줄다리기 등 경기가 한창이었고 각

마를 천막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4명은 앞에 앉고 5명이 뒤에 서서 연주하기로 하고 우리는 연주할 체비를 서둘렀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가 연주할 차례.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기타동아리입니다. 저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50대 아줌마·아저씨들인데 7~80년대 통기타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6개월 동안 영북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이틀씩 기타를 배웠어요. 짧은 기간 동안 배운 실력이라 부족한 점도 많고 들으시기에 어색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늦은 나이에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똘똘 저희들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말을 한 후 ‘토요일 밤’과 이문세의 ‘나는 행복할 사람’을 연주했다.

우리가 연주하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무대 앞에 모여서 함께 따라 불러 주기도 하고 어떤 천막 안에서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연주가 끝난 후 “여러분 어때세요. 들을 만 한가요?” 하고 묻자 “네~” 하는 주민들의 탄원과 함께 들려오는 앰프소리에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감사함을 표시하며 ‘소양강처럼’, 김수철의 ‘내일’, ‘질갈산’ 등을 차례로 연주했다. 모든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리들이 즐겨들던 음악이 나오니까 가슴이 다 뭉클해지더라. 어떻게 그렇게 기타를 딱딱 뭉쳐서 잘 칠 수가 있느냐. 정말 너무 듣기 좋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회원의 남편이 찾아와 고생했다며 잠이 못자고 회원 모두에게 일일이 전해 주었음에도 마치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된 후 동아리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즐기며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기타연주가 너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는 회원을 서로 북돋워주어 오늘까지 오게 된 일,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살이 배겨서 입으로 호호 불며 아픈 것을 참고 연습했던 일, 일을 하느라 하루 2~3시간 밖에 잠을 못 자면서도 연습에 몰두했던 일, 배고프면 서로 먹을 것을 챙겨와 가족처럼 지내왔던 일,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대에 올라가 속으로 노심초사 마음 졸이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연주해야했던 일까지.....

빈 자리에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취기가

동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모두들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외치며 “선생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첫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니 앞으로 우리 기타동아리는 너무 잘 될 것이다”라며 즐거워했다.

첫 연주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주민자치센터 연습실에서 오늘도 연습중이다. 앞으로 노인층을 방문하여 봉사할 경우를 대비해 ‘부르스(BLUES) 리듬과 ‘긱 리’ 리듬을 연습중이다. ‘봄날은 간다, 대전부르스, 감동이야 감동이야, 성주풀이’를 연주하자 모두가 너무나 재미있어하며 밤 11시가 넘도록 집에 갈 생각도 않고 열심히 연습에 열중이다.

“그동안 기타 못 치고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네. 음악에 아주 푹 빠져 버렸어요. 큰일났네, 다들...” 는 말에 다들 맞는 얘기라고 맞장구치며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기타동아리는 부부동반이 두 팀이나 되는 등 형태, 가족 같은 분위이다. 그래서 더 마음이 잘 맞고 분위기가 좋다.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들에게도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마음의 안식을 주고 싶다고 모두들 다짐하며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기타 줄을 튕긴다.

자유기고

싱가포르 여행기

청렴결백한 공무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先進國

청렴결백한 공무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先進國

새벽4시, 일립벨소리에 눈을 떴다. 공동사료를 구매, 배합해서 공급하는 의양TMR 사료 회사의 조합원인 창수·포천·가산 낙농인 12명과 연천·동두천·양주 낙농인 21명은 9시행 싱가포르 비행기에 올랐다. 기내에서 음료수와 샌드위치 사한편 맥주를 마시며 바라본 파란하늘과 하얀 솜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풍계구름이 아름답고 웅장하였다. 작년 친정 부모님 칠순 기념으로 싱가포르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두 번째 여행이라 두려움이나 호기심에서 벗어나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겼다. 비행기에서의 긴 시간이 항상 지루하고 읽을 것이 없어 이번에는 준비한 포천신문을 읽으며 어느덧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시간보다 1시간 빠르고 31°C의 습하고 무더운 날씨였다. 현지 가이드 한재용씨를 만나 여정이 시작되었다. 센토사섬에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 수족관을 관람하고 트라이쇼라는 도시 속 달리는 인력거도 체험하고 늦은 시간 리버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이어진 카페거리와 서로 다른 건물의 아름다운 야경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샹그릴라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이튿날, 남자와 여자 두 팀으로 차량에 나누어 싱가포르 통역 가이드 이경애를 만났다. 이경애씨는 중국계 싱가포르인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51세의 시원시원한 성격을 지닌 가이드였다. 그녀가 직업에 만족하고 여행은 항상 즐겁고 좋다고 하며 우리 팀 이름을 말레이시아말로 ‘홍다’라는 뜻의 ‘히브자리 까르르’ 팀으로 정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설명을 들은 싱가포르의 대단한 나라였다. 물이 부족하여 말레이시아에서 3개관을 통해 2개관에 물을 수입하고 1개관은 물을 정수하여 비싸게 다시 수출하며 기가막히게 800원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400원으로 싸서 차량에 물을 주유하고 말레이시아로 통과하게 법으로 정하였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같은 건물은 허용하지 않으며 전선은 지하로 통하고 노출관과 노출이 없으며, 민5세까지 삼천민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국어로 영어 제2외국어는 엄마다라 국어로 배우며 모두가 맞벌이 부부여서 7시30분 이전에 등교를 한다.

중·고등학교는 5년, 20개 전문대학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4년 후 졸업하고 3개의 국립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정부주요기관에 투입하고 연금제도가 확실하고 노후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여 캄뎀마을, 회교사원을 둘러보고 정통가옥에서 본 전통춤은 손놀림이 유연했다. 10시30분 다시 싱가포르로 귀환하여 새들의 천국



이문미 주부영어가이드

이라고 불리는 쥬름새공원에서 새소를 관람하고 모노레일을 타고 여러 종류새 7,000여 마리를 보았다.

셋째날 인도네시아 빈탄에서 남자 여자 둘이 나루 수구를 하였다. 반칙을 쓰며 여자팀이 20:5로 승리해 아줌마들은 확실히 무서운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경기를 통해 서머서머함은 사라지고 즐겁고 재미있었다. 빈탄의 마지막 만찬으로 비비큐파티를 하며 자시개 시간도 가졌으며 양주 팀과 포천팀 노래자랑도 했다. 처음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나중에는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응원하며 즐겁고 신나는 파티로 이루어졌다.

셋째날 빈탄에서 아침 식사 후 우린 웨디호를 타고 1시간 후 싱가포르로 귀환 도시 속 여유 공간 머라이언 공원과 국립식물원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부모님, 남편, 아이들 선물을 맨세점에서 저렴하게 구입했다. 황제유람선에서 중국 요리로 식사를 할 때 전통생생양 연주로 우리나라 “사랑이여”곡이 나와 장애자 지원봉사 팀과 다 함께 음악에 맞춰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회원분들은 뒷좌석이었으나 나는 앞좌석이였다. 조용히 여행기북문을 쓰면서 수구 게임 생각이 나 혼자 피식 웃었다. 싱가포르의 작은 나라로 자연은 없지만 깨끗한 환경, 청렴결백한 공무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도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다.

한생애 나는 반찬과 알랑미를 먹다가 한국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로 김치찌개를 먹었다. 맛있는 쌀밥에 김치찌개를 먹으니 ‘바로 이 맛이야!’ 역시 뭐니 뭐니해도 한국음식을 먹으니 최고’라는 생각이 힘이 절로 난다. 임원회 회장님께서 “조합원님 집으로 돌아가셔서 더욱 사랑 관리하시어 낙농과도 발전하고 의양 TMR 배합사료 많이 먹여 회사에 많은 수익으로 4회까지는 동남아여행을 하였지만 내년 5회 여행은 유럽으로 갈수 있길 기약합니다.”라고 인사말씀을 하셨다. 오늘 하루도 아내로 남편으로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열심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자. 다함께 큰소리로 ‘낙농인의 건강과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